

인민들이 즐겨 찾는 옥류약수상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옥류관과 나란히 옥류약수상점이 자리잡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옥류약수상점에 들어서니 골길새없이 드나들며 약수를 마시고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밝은 얼굴로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는 이곳 봉사자

들의 모습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려 정답게 안겨왔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홍예순책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옥류약수는 소화가제 동질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들에 대한 약리효과가 대단히 클뿐 아니라 치료적용 방법 또한 다양하다고 하면

서 《우리 상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옥류약수를 마시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약수를 마시며 나누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왔다. 《옥류약수야말로 청춘의

활력을 부여하는 〈보약〉입니다.》 《목은 속달도 푹 떨어진답니다.》 산뜻하게 꾸러진 약수공급실에서 약수를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니 옥류약수가 인민들의 생활에 깃들게 하여주시러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왔다. 다정한 그 은정속에 마련된 봉사지에서 시원하고 건

강에 좋은 옥류약수를 마시기도 하고 받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은 상점을 더 환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듯싶었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로 우선시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약수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되고있으니 옥류약수상점은 오늘도 사람들을 어서 오라 부르르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부기사장 겸 기술발전과장 서승관




서승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부기사장 겸 기술발전과장은 고질강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하여 CNC호브연마반과 그에 의한 연마방법, 건식공주연마반의 제진장치, 수력타빈날개의 조형방법 등 여러건의 가치있는 발명을

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서승관은 대치차를 주조하기 위한 조형방법과 주강주물품의 기포 제거방법 등을 발명함으로써 대규모화력발전소 보수설비 생산 등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발전설비생산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중요대상설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그는 지난해에 제정된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는 천연미안막

최근 공화국의 의학연구원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여주는 새로운 천연미안막을 만들어 내놓았다. 화학첨가제를 쓰지 않고 피부미용 및 보호에 유익한 천연원료들을 고려약학적 및 생물공학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이 미안막은 건조분말상태의 가루와 용액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기슬이 용융된 새로운 천연미안막을 사용하면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부속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피부세포보

결과 피부각질화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얼굴살결을 맑고 부드럽게 하여줄뿐 아니라 피부의 탄력성과 윤활성을 높여준다. 또한 항산화활성과 색소침착억제능력이 높은 천연생리활성물질들의 호상배합작용



으로 하여 신속하고 뚜렷한 보습 및 미백(색소 제거)효과를 볼수 있다. 모든 유형의 피부에 다 적용할수 있고 주름살이나 여드름, 주근깨는 물론 진한 검버섯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주는 새로운 천연미안막의 높은 효능은 많은 사용자들속에서 검증되었으며 그에 대한 인기는 날날이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묘향산의 풍연폭포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 상원동 어구로부터 골짜기를 따라 3.3km 올라가 해발높이 500m정도 되는 지점인 법왕봉 남쪽비탈면에 있는 폭포이다.

높이 84m, 물이 흐르는 길이 105m가 되는 이 폭포는 묘향산의 수많은 폭포들 가운데서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며 누운폭포(와폭)로서 이채를

뽀뽀한다. 폭포우에는 직경 3m, 깊이 1.5m 되는 통소가 있다. 법왕봉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통소에 차다가 다시 넘어나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룬다.



화강암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폭포수는 마치 고기비늘과 같은 모양을 이루면서 쏟아져내리는 흰 비단필을 드리운듯하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을 《룡눈》이라고 한다.

룡연폭포의 왼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구슬같은 물방울을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산주폭포가, 오른쪽에는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천진폭포가 있다. 상원암을 마주하고 룡연폭포옆에 솟은 인호대에 오르면 이 세개의 큰 폭포가 한눈에 안겨온다.

이처럼 세계의 큰 폭포를 가까이에서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절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인호대에서의 폭포구경을 《묘향산8경》의 하나로 널리 자랑하여왔다. 본사기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백자롱뿔음무늬붓꽃이



백자롱뿔음무늬붓꽃이는 통을 뚫어세긴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흰자기붓꽃이이다. 높이 11cm, 직경 10.8cm의 둥근통모양으로 되어있는 붓

꽃이는 몸체부분에 구름속에서 꿈틀거리는 룡의 형상을 뚫어세김법으로 장식하였으며 그것이 아래웃가장자리에 장식한 타래무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푸른빛이 도는 투명유약을 순백색의 자기우에 맑게 입힌 것으로 하여 이 붓꽃이는 조선봉건왕조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원통모양의 붓꽃이가운데서도 형태가 세련되고 색깔이 맑고 깨끗하여 산뜻한감을 준다.

특히 뚫어세김장식이 그 형태와 잘 조화되어 조선봉건왕조 흰자기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가을철에 섭취하면 유익한 식품들

로 관리하는데 좋으며 간염과 담석증, 담낭염, 뇨로결석증,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한 소화 및 잠장애, 우울증 치료에도 유익하다.

◆양배추 양배추에 들어있는 유기산들은 장내미생물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면역계통을 강화한다. 그밖에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칼리움 등이 풍부히 들어있다.

◆감자 감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가가 높다. 감자의 아미노산들은 흡수가 잘된다.

◆순무순무는 항진균 및 항균작용을 하며 일부 진균들의 증식을 지연시키는 식물성항생물질과 항균활성물질인 리조핀을 함유하고있다.

순무우윳에도 유익한 물질들이 풍부히 들어있다고 한다.

◆사과 사과에는 여러가지 활성물질이 최대로 축적되어있다. 사과

사과는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증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체정화에 리상적인 해독작용식품으로 된다.

사과는 또한 많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준다. 본사기자

연암동과 박지원 (1)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연암 박지원(1737년—1805년)은 18세기 우리 민족이 낳은 뛰어난 실학사상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 문화였다. 그는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를 빛나게 장식한 소설들인 《랑만전》, 《허생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남겼으며 《열화일기》와 같은 방대한 저서를 통하여 봉건적질곡에 빠져있던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시킴에 대한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견해를 내놓고 그것을 작가의 문학작품들에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구현한 재능있는 문인이었다.

1778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성밖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개성류수병마사 유언호가 말을 지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대문쪽으로 들어오고있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오는 때인데 대렬의 선두에는 류수병마사 유언호가 초헌(두바퀴달린 수레)우에 높이 올라앉았고 군기와 쇠불방망이를 추켜들고 갑옷을 떨쳐입은 장수들이 그 좌우에 벌려선것이 자못 위풍이당당하였다.

유는 여하튼시간에 엎드리지 않았다고 괜히 말쑤이 나고 보면 같잖이 굽한 사람말만 이 손해를 보는 판이라 옆에 엎드려있던 웬 젊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괜히 드림잡히지 마세요. 유언호가 초헌(두바퀴달린 수레)우에 높이 올라앉았고 군기와 쇠불방망이를 추켜들고 갑옷을 떨쳐입은 장수들이 그 좌우에 벌려선것이 자못 위풍이당당하였다.》

봉건적량반보수파들의 박해를 피하여 10여년간 생활한 개성시 연암동(현재 장풍군 연암동)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기의 호를 《연암》(제비바위)이라는 고장 이름을 따서 지은것만으로도 그가 연암동을 자기의 생애와 어떻게 결부시켰던가를 짐작할 수도 있다.

연암 박지원의 다방면적인 학문연구와 문학창작,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이 작은 글에서 다 이야기할수 없음을 물론이다. 다만 그의 생애중에서 연암동과 관계되는것들만 역사자료에 근거하여 재현해보는이다.

그런데 유언호가 초헌(두바퀴달린 수레)우에 높이 올라앉았고 군기와 쇠불방망이를 추켜들고 갑옷을 떨쳐입은 장수들이 그 좌우에 벌려선것이 자못 위풍이당당하였다. 《그때, 개성류수행차는 처음이요...》 《어디서 오시나이까?》 《음, 서울사는 사람이네만 오기는 멀지 않은데서 오는데 길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개성서 사나?》 이번엔 량반쪽에서 물었다. 《그렇소이다. 금학골 막바지에서 사오이다.》

《금학골이라면 내게두 낮익은 곳일세. 그 동네에 〈만휴당〉이라는 정자가 있을텐데...》 《예,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자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중년량반은 잠시 지나가는 군사대렬을 바라보다가 또 가까이로 걸어들었다. 《에... 웃으시오이까?》 젊은이가 호기심이나서 묻자 중년량반은 《허허... 자못 훌륭하군.》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금 저앞에서 초헌을 타고 지나가는 류수

연암 박지원의 말안장에 오르자 그때도 말 몇마디 나는 정분이 아직 가지지 않은때문인지 량반의 인품에 마음이 끌려서인지 불임성종은 젊은이가 안장걸에 바삭 붙어 걸으면서 물었다. 《어런님, 성할이라도 익혀두고싶소이다.》 《허허... 로상지우라 길에서 사린 친구이니 통성명을 해야지.》 《저는 금학골 막바지서 사는 최두이오이다.》 《허허... 그런가? 나는 금

연암이 사색당쟁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한양생활이 고달파 연암동골짜기로 들어와서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화전을 일구며 문공하게 지내는데를 늘 딱하게 생각하고있던 유사경은 자신해서 규장각 직책자리를 내놓고 개성류수부술을 벌여가지고 한양을 떠나 연암의 시골집이 가까운 개성으로 왔다. 순전히 연암의 생활을 도와주며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다. 쉽지 않은 우정이고 의리였다.



병마사를 본적이 있나?》 하고 다시 물었다. 《없소이다. 심입사포를 저같은 상놈이 언제 감히 보겠나이까?》 《음... 그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유사경은 다 지나갔다. 엎드렸던 사람들이 옷자락을 툭툭 털고 일어서서 저마다 걸걸을 가기 시작하

었다. 중년량반이 말안장에 오르자 그때도 말 몇마디 나는 정분이 아직 가지지 않은때문인지 량반의 인품에 마음이 끌려서인지 불임성종은 젊은이가 안장걸에 바삭 붙어 걸으면서 물었다. 《어런님, 성할이라도 익혀두고싶소이다.》 《허허... 로상지우라 길에서 사린 친구이니 통성명을 해야지.》 《저는 금학골 막바지서 사는 최두이오이다.》 《허허... 그런가? 나는 금

천 연암골에 사는 이름없는 서생일세. 모두들 내 별호를 불러 연암이라 하니 젊은이도 그리 알아두게.》 《연암선생님, 혹시 금학골에 들리시면 이 최두이에 게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오이다.》 《고마우이.》 《그럼 편안히 다녀가십쇼.》 《편히 다녀오게.》

문어회

음식감으로 문어 200g일 때 초고추장 20g, 레몬 20g을 준비한다. 문어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놓는다. 다음 80°C정도의 물을 붓고 재빨리 저으면서 살짝 데쳐 얼음물에 잠그었다가 물을 짜낸다. 접시에 얇게 썬 레몬을 둘러담고 물을 짜온 문어를 놓

은 다음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문어에 많이 들어있는 라우린성분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막고 심장의 기능을 높여주며 간암예방과 치료에 좋다. 문어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므로 위병환자들의 식사에는 고려해야 한다. 본사기자



어느 고장이 더 추운가

옛날 두 허풍쟁이가 자기가 사는 고장의 추위에 대해 강조하려고 저저마다 꾸며서 말했다. 《우리 고장이 얼마나 추운지 아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입김이 눈이 돼서 땅에 내린다네. 자네네 고장은 그렇게까지 춥지야 않

겠지?》 《말도 말게. 그것도 추운가? 우리 고장에선 사람들이 말을 하자마자 그 말마디들이 모두 얼음덩어리가 돼서 땅에 떨어져 메꿀테걸 골라간다네. 그래서 할수없이 그걸 주어야다가 불에 녹여야만 들을수 있다네.》